

“지방 수험생에 불리한 정시 확대 안된다”

광주교육청, 교육부 방침 반발...학종 보완·수시 유지 주장 수능 절대평가·지원 횟수 줄이기 등 5가지 대입 정책 제안

광주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축소·정시모집 확대’를 추진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바탕으로 한 현행 수시 모집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입정책 제안을 채택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학종이 일정 부문 창의력 증진을 비롯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급격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대입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광주 교육계의 여론을 축약한 시교육청의 입장은 “정시모집 확대는 곧 교육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정시모집 확대는 교육현장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담겨 있다. 이는 입시에서 수능 영향력 강화로 연결되는 교육부발(發) 정시모집 확대 기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3일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비롯한 5가지 대입정책 제안을 담은 ‘대입 정책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을 교육부에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학종을 축소하기보다는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입장은 학종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만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게 골자다.

다만, 시교육청은 현행 학종이 기록과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학생부 양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은 평가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역 상위권 학생들에게 입시 제도 개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교단의 현실도 작용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의 지표가 되는 서울대 등록자 규모와 학생들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대입제도 고수가 이른바 상위권 광주 학생들의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

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총 95명이 올해 서울대에 등록했는데, 정시는 11명(수시 84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정시 서울대 등록 인원은 7명(수시 47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최근 박찬란 차관이 직접 주요 대학 총장을 면담하거나 입학처장에게 전화해 “정시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대입정책 기조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지난 1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경우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1136명으로,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보다 125명 늘어 전체 모집인원의 33.1%를 차지하게 된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상위권 대학도 정시 모집 확대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수능을 영어 영역처럼 절대평가(등급제)로 전환,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수능으로 학생들을 획일화해 줄 세우지 말고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내용이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정시를 통합, 단순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전형과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나뉜 현행 방식을 통합해 수능 이후 동일한 기간에 진행하자는 것이다. 지원횟수도 현행 9회(수시 6회, 정시 3회)인 것을 6회로 줄이자는 의견도 담았다.

수시로 변하는 대입정책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교육부에 보낸 정책제안에 담았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발송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제안’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광주 대입정책포럼에서 나온 학생·학부모·교사·학부모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오는 8월로 예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광주 교육계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회서 열린 5·18청문회 30주년 기념전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회 ‘다시 묻다, 그날의 진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도로 위 누워있는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새벽 시간대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새벽 1시 25분께 김제시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시속 30km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고, 바퀴 쪽에서 달경하는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내려서 보니 바닥에 사람으로 보이는 시커먼 물체가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에 촬영된 화면에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

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이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군가 누워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가까스로 건진 목숨 끝내...

음독자살 기도 입원 60대, 제석산 구름다리서 투신 사망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투신 자살했다.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7)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37m 아래 도로로 투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박씨는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 나와 3m 정도 떨어진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투신했다.

박씨는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치아 때문에 음식 섭취 등에 불편을 겪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 15분께 화순군 도곡면 소재에 있던 자신의 농장에서 농약을 마셨으나,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이 회복된 상태였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길이 76m, 높이 37m, 폭 2m의 다리로 지난 1999년 완공됐다. /김한영기자 young@

원룸서 40대男 흥기 질려 숨진 채 발견

경찰, 자살 가능성 조사

광주시 서구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이 흥기에 질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원룸에서 정모(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 박모(48)씨가 발견, 112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정씨가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원룸으로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조사결과 박씨가 정씨의 원룸을 방문했을 때에는 정씨의 목에는 흥기에 질린 상처가 있었으며, 정씨 바로 옆에는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흥기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정씨가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침입흔적이 없는 것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게 정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상포지구 내부 문서 유출

여수시 공무원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여수시 공무원 박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인도 주차 차량에 전동휠체어 길 막히자...찾김에 돌 던져 파손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50대 남성이 인도에 주차한 차 때문에 자신의 통행로가 막혔다며 고가의 차량에 돌을 던졌다가 경찰서 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윤모(56)씨는 지난 2일 밤 9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차평동 한 식당 앞 인도에 세워진 김모(64)씨 소유의 BMW X6와 임도

(39)씨 소유의 SM7에 장착된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보닛과 유리창 등에 돌을 던져 파손했다는 것.

○...평소 거동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닌 윤씨는 경찰에서 “갓길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점령하는 차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날 인도에 버젓이 주차된 차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 빨리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